

TV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6 ⑤:40 관찰카메라 24시간(재) 50 헬킴 투시월드(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 손을 잡아>	05 KBC 뉴스지금 30 남도의 아침
8 10 굿모닝 A	25 아침미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나만의 당신)
9 00 신문이야기 돌격구조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국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10 팩트 10	00 설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트윈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11 20 정치 이야기 是非非非	00 대한민국 행복발전소 55 바른말 고운말	15 사랑의 가족 45 일일드라마 <천상여자>(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우지개>(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2 30 스타 패밀리송(재)	00 KBS 뉴스12	2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 뉴스 20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재)	00 SBS 12 뉴스 30 화첩기행 (겨울, 햇살 물들어 번지다)
1 40 뉴스톡	00 생명최전선(재) 40 문화책갈피(재)	35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재)	25 통일 전망대	30 한국의 맛
2 50 직언직설	20 디큐 공감(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계는 지금(재)	05 꾸러기 식교실 베스트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3	00 뉴스토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25 꼬마신선 타오르(재) 55 TV유치원 콩다콩	00 MBC 경제 뉴스 10 도비도비 40 헬로킴즈 아하 지구탐험대	10 생활의 달인 (재)
4 10 박종진의 뉴스 소 레도난파 1~2부	00 KBS네트워크특선 (수자로 읽는 부산 남부소) 55 트윈 생활체조	25 애니월드 55 별친구 1부	30 꼭? 뭐! 키즈스쿨	00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페어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날씨와 생활 35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10 채널 A 뉴스 TOP10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브리보 멋진 인생	05 토크콘서트 <회통>
7 20 이영돈 PD의 막걸리 X파일(재)	00 KBS 뉴스 7 30 400회 특집 러브인 이야기	50 일일 드라마 <천상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떠들썩 20 일일드라마 (할 키운 딸 하나)
8 30 갈매기자 기자	25 일일연속극 (사랑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스페셜 55 1대 100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딸 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현장 21
9 40 채널 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배란다쇼	
10	00 시사기획 창 50 콘서트 필	00 월화드라마 <총리와 나>	00 월화특별기획드라마 (기황후)	00 월화드라마 (꽃피는 봄이 오면)
11 00 모쿠드라마 <싸인>	30 KBS 뉴스라인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심장이 뛰다
12 10 헬킴 투시월드(재)	30 국악의 향기	30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 올림픽	10 MBC 뉴스 24 20 MBC 100분 토론	35 소치 2014 특집 별을 쏜다

EBS

06:10 세계의 눈	11:20 세계테마기행 (남미의 심장, 볼리비아 2부 -대지의 예술, 토로도로)	15:30 꼬마가족 크랭클린	20:00 EBS 뉴스
07:00 미술체험대		15:45 외곽외곽 친구들	20:20 청소년 리얼체험 팀
07:15 정글북		16:00 댕댕댕 유치원(재)	20:50 세계테마기행 (중앙아시아의 거인, 카자흐스탄 2부 -인연이 닿는 곳 투르키스탄)
07:30 부릉부릉 브루미즈	12:00 EBS 정오 뉴스	16:20 캐니발	21:30 한국기행 (통영의 섬 2부 -소매물도에 살아라라)
07:45 뽀뽀뽀 뽀로로	12:10 EBS 스페이스 공감2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	21:50 EBS 다큐프라임 (해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 말문을 터라)
08:00 댕댕댕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곰디와 친구들(재)	22:45 장수의 비밀
08:20 놀이터 구조대, 보잉	13:10 겨울방학생활 1학년	17:00 방귀대장 뽀뽀(재)	23:15 세계의 눈
08:35 방귀대장 뽀뽀	13:30 겨울방학생활 3학년	17:15 시계마을 타기톡	24:10 세계 명작 극장
08:50 곰디와 친구들	13:50 겨울방학생활 5학년	17:30 뽀뽀뽀 뽀로로	
09:05 두디다콩	14:10 배움너머	17:45 놀이터 구조대 보잉	
09:20 부모	14:15 텡가팅가이 이야기	18:00 미연미아 로봇	
10:00 한국기행	14:30 꾸러기 상상여행	18:15 정글북	
10:20 영의의 건강비결	15:00 열려라 아비디스	18:30 생방송 보리하니	
10:50 최고의 요리비	15:15 꼬마기사 마이크로	19:30 두키 탐험대	

EBS플러스1

00:00 생방송 EBS 교육대토론	12:1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구문편)
01:00 하나뿐인 지구	13:05	(영어독해 유형편)
01:40 포스입학	14:00 포스입학	(문학 I)(재)
02:30	14:50	(문학 II)(재)
03:20	15:40	(수학 I A형)(재)
04:10	16:30	(수학 I B형)(재)
05:00	17:20	(미적분과 통계 기본)(재)
05:50	18:10	(영어 구문투어)(재)
06:40	19:00	(영어 독해의 유형)(재)
07:30	20:00	(고교 vocabulary)(재)
08:20	21:00	(적분과 통계)(재)
09:10	22:00	(기하와 벡터)(재)
10:00	23:00	수능길잡이 (영어독해 유형편)(재)
10:50	23:50	지식채널e (기하와 벡터)(재)
11:40	23:55	배움너머

EBS플러스2

07:00 2014년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강좌	15:20 초등 1년 EBS 겨울방학생활
07:50 친절한 수학 익힘책	15:40 초등 3년 EBS 겨울방학생활
08:00 9급 공무원 실전 대비 강좌	16:00 초등 5년 EBS 겨울방학생활
08:30 검정고시 강좌	16:20 초등 개념 잡기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6:50 직업의 세계 일인자
09:10 TV 중학	17:20 초등 개념 잡기
09:50	(수학 I 상)
10:30	(역사 I)
11:10	(국어 I)
11:50	(수학 I)
12:30 중학 1학년 학습비밀방	(영어)
13:10 중학 2학년 학습비밀방	(영어)
13:50 TV 중학	(수학 II 상)
14:30	(국어 II 상)
15:10 스포츠	23:20 세계의 아이들
	24:00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지금은 1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

프리 선언한 ‘야구 여신’ 최희 전 아나운서

“지금을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1회 말 공격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상황인 것 같아요. 삼진을 먹어 공격이 끝날 수도 있고 신중하게 쳐서 홈런이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삼진을 당해도 2회가 오니까 좌절하기보다 다시 도전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야구팬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야구 여신’ 최희 전 아나운서가 새로운 도전의 길에 나섰다. 프리를 선언하고 소속 방송국에서 퇴사해 ‘방송인’으로 변신한 그를 최근 서울 종로에서 만났다.

“느낌이 이상해요. 주변에서 ‘이제 연예인이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보다는 ‘직장인’에서 ‘자영업자’가 된 기분이예요.(웃음) 재미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방송에서 잘한 날은 즐거운데, 적을 못 한 날은 걱정도 되죠.”

2010년 빼어난 미모의 그가 등장해 건강 한 남자들이 바글바글한 야구 경기장을 휘젓고 다니자 야구팬의 시선은 순식간에 그에게 쏠렸다. 당시 그가 홀로 지방을 전장하며 재능을 겸비한 스포츠 아나운서의 역할을 선보인 덕분에 지금 ‘야구 신전’이 여신들로 가득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안정된 직장에서 4년간 팬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그를 무엇이 ‘불안정한 자유’의 길에 나서게 했을까.

“저는 ‘이상’을 꿈꾸며 살고 싶어요.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질이 있죠. 하고 싶은 대로 질러볼 타이밍이 지금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4년을 일하니 다니던 직장에서도 제가 제일 선배더라고요. 이제 무엇을 하나 생각하다가 결론 내렸죠.”

그는 “회사 안에서 느낄 수 없던 두려움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어디에서 해야 할 일인지 모르고, 어느 방향으로 킴을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도 “지금은 도전하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당차게 말했다.

불안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만큼 가능성이 열린 것도 분명하다. 어느 분야에서 활약하고 싶을까. 이미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많은 기사를 만들어 내면서 높은 관심을 증명했다.

“일단 매력적인 MC가 되고 싶어요. 예능이든 교양이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만 했으니 저러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의 트위터를 보면 ‘각목야녀’라는 표현이 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 함축적으로 그를 표현한다.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작가가님이 지어주셨어요. 대본상 예고를 부려야 하는데 각목처럼 너무 뻣뻣하다고요. 거기에 ‘야구하는 여자’ 의미를 더해 ‘각목야녀’예요. 그래도 실제로 예고가 없지는 않습니다.(웃음)”

‘프리’ 선언 당시 친분이 있는 야구 선수들이 아쉬움이나 응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 온 메시지는 없었을까.

“사실 따로 연락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어요. 윤석민 선수가 동갑내기 친구인데, 석민 선수도 지금 도전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둘 다 화이팅해서 잘 되자’는 문자가 왔죠. 또 워낙 친한 손아섭 선수가 ‘잘 되라’고 응원해줬어요.”

그는 이어 “아는 분들이 ‘가서 잘해라’라고 하면 ‘나 야구장 갈 건데. 나 떠나는 거 아닌데’라고 답하곤 했다”고 말했다.

최근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신전이



여신으로 미터져 나는 나왔다’는 발언이 화제가 됐다. 아나운서에서 방송인으로 직함을 바꿨듯, 그가 바라는 새로운 수직이 무엇일까.

“음...저는 ‘국민 누나’를 하고 싶어요. 누나는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을 수 있으니까 그중의 하나로 저를 끼워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웃음) 그렇게 끼워 주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10만 관객 돌파

40개 미만 상영관 저예산 영화로는 이례적

고래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사진)’가 10만 관객을 돌파했다. 40개 미만의 상영관에서 개봉한 저예산 다앙성 영화로는 이례적인 성적이다. 이 영화의 수입사 티캐스트는 2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근거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가 전일까지 10만 1403명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개봉 39일 만이다.

40개 미만의 상영관에서 개봉한 영화로 10만 관객을 돌파한 건 지난해 ‘마지막 4중주’(10만8007명)에 이어 4개월 만이다. ‘마지막 4중주’는 ‘말할 수 없는 비밀’(2008)이

후 5년 만에 저예산 영화 가운데 10만 명을 돌파한 바 있다. 다양성 영화 가운데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존 카네이 감독의 ‘윈스’(2006)이며 모두 23만 2459명을 모았다.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는 출산과 함께 병원의 실수로 아이가 뒤바뀌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르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뒤바뀐 아이라는 신곡적인 소재를 토대로 고래에다 감독의 답답한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작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예술성과 통속성을 동시에 담은 이 영화는 초반부터 관객들의 주목을 받



았다. 개봉 3일 만에 1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는 다양성 영화 중 역대 가장 빠른 속도인 14일 만에 5만 관객을 돌파했고, 20일 만에 역시 가장 빠른 속도로 7만 관객을 넘었다. /연합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8일(음 12월 28일 己亥)

子	36년생 과감한 판단력과 신속한 제동이 필요할 때이다. 48년생 과신은 금물이다. 60년생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니 잘 생각해 봐야겠다. 72년생 쉽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84년생 오히려 받을 수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63, 69
丑	37년생 잃는 바가 많다. 49년생 구조를 개선해야 무의미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61년생 이해득실을 떠나서 성숙한 사고로 조망하자. 73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졌을 때 보이는 것이다. 85년생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77, 95
寅	38년생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모양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50년생 인내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리라. 62년생 긍정적이야하면 능률이 오른다. 74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41
卯	39년생 대비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51년생 생각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가 기대된다. 63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75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82, 32
辰	40년생 미동도 하지 않겠다. 52년생 상대는 숨은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64년생 여태까지 해 왔던 방식대로 계속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76년생 드러나지 않은 변수가 훨씬 크게 작용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83
巳	41년생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다. 53년생 이미 걸너 버린 것이니 이에 관심을 거둘이 좋다. 65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질 것이다. 77년생 피할 여린 노고 끝에 감미로운 기쁨이 있었다. 행운의 숫자 : 89, 18

午	42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정확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다. 54년생 상호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6년생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불편해지리라. 78년생 균형과 조화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33, 84
未	43년생 상부상조한다면 능률이 극대화된다. 55년생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표명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67년생 살펴보아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79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1, 27
申	44년생 길흉의 쌍곡선이 길게 뻗어 있다. 56년생 이슬에 맞지 않는 줄 모르는 법이다. 68년생 망설이듯 말고 행해야만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80년생 헤쳐 나갈 수 있는 기상천외한 묘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1, 09
酉	45년생 미세한 부분을 세밀하게 고찰해야 한다. 57년생 방심하다가는 수습하기가 어려워진다. 69년생 지난 일에 얽매었다면 추진력이 약화 되리라. 81년생 효용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에 놓여 있다. 행운의 숫자 : 94, 52
戌	46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가끔씩 빨리 청산하는 것이 좋다. 58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할 필요할 때이다. 70년생 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사시키게 될 것이다. 82년생 활발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10, 90
亥	47년생 아무 일도 없이 조용히 넘어갈 것이니 노과심을 버려 두라. 59년생 수용한다면 나름대로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71년생 상대의 숨수가 보인다. 83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1,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행영” ☎010-9790-8237

TV 하이라이트

대학 교육의 문제·대안 제시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EBS·밤 9시50분)='말문을 터라!'라는 주제 아래 한국 대학교육의 문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다. 대학생이 강의실에서 질문하지 못하고 침묵하는 원인을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찾아본다. 제작진은 '침묵의 강의실'을 '학문의 전당'로 바꾸기 위한 '말문을 여는' 교수법을 가진 교수 3인을 찾았다. '1:1 튜터링'을 통해 '날카로운 비평'을 던지며 학생의 생각을 깨우는 서울대 건축학과 강권현 교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말문을 여는' 연세대 철학과 김형철 교수, 교수의 권위를 내려놓고 혁신적인 수업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자극하는 '한국의 키링' 한양대 정호찬 교수까지. 3인 교수의 살아있는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말문을 트고 배움이 깊어지는 과정을 공개한다.

과열된 일본의 '협한'



PD수첩(MBC·밤 11시15분)='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일본에서 조사된 '신조어·유형어 대상 톱 10'에 선정된, 협한 시위 및 발언을 칭하는 신조어다. 일본 열도의 뿌리 깊은 협한 분위기가 최근 더욱 심상치 않다. 외교부 조사 결과 일본 내 협한·반한 시위 발생 빈도가 3년 만에 10배나 늘었으며, 서점과 잡지 가판대에서도 한국을 공격하는 내용의 주간지와 서적들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동북아 외교 관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우경화의 흐름에 편승한 일본 언론의 '협한' 상업주의의 극성을 떨치고 있다. 비정상으로 과열된 '협한'의 열기로 들끓는 일본을 'PD수첩'이 현시 취재했다.

프라데리얼리증후군 앓는 '하은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SBS·오후 5시35분)='을해 7살이 된 하은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하은이의 나이를 다시 한 번 되묻는다. 하은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다니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고 있다. 15번 염색체 이상으로 생긴 희귀질환인 프라데리얼리증후군을 앓고 있는 하은이는 이 병을 가진 다른 아이들과는 증상이 다르다. 아이가 포만감을 느끼지 못해서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비만이 될 정도로 살이 썩어 나가는 하은이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몸무게가 9kg이 조금 남는다. 하은이의 부모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눈빛으로 부모모습을 대면한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질까 사람들이 눈을 피해 가족들은 점점 세상과 단절된 교외 안식당 모퉁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